

시라사키 만요 공원

시라사키 만요 공원 내에는 시라사키 해안을 형성하는 석회암을 칭송하는 노래비가 있습니다. 늦어도 8세기에는 그 노출된 석회암이 시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으며, 현존하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가집인 『만엽집(万葉集, 만요슈)』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. 『만엽집』에는 약 4,500 수의 ‘와카(일본 고전시의 일종)’가 담겨있습니다. 그 시의 대부분은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같은 인생의 사건, 변화가는 사계절과 자연의 모습에서 우리난 감정을 노래한 것입니다.

공원 내에는 와카가 새겨진 비석이 2개 있습니다. 두 비석 모두, 기이 수도(세토 내해 동쪽 끝에 위치)와 곳을 따라 바다에서 돌출된 석회암 쪽을 향해있습니다. 주차장에서 가까운 쪽의 석비에 박혀있는 청동 장식판에는 701년에 지어진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. 석회암의 아름다운 풍경에 경탄하며, 숨이 막힐 듯한 멋진 해안선의 경치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는,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. 몬무 천황(697~707년)이 기이국(현재의 와카야마현)을 방문했을 때 지은 13수 중 하나입니다. 천황은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여행했던 것 같습니다. 시의 문구를 통해 일행이 석회암 곳을 배로 건너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
또 하나의 노래비에는 현대 시인 오카노 히로히코(1924년생)의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. 석회암이 새벽빛에 물든 평온한 풍경을 노래한 것입니다.